# 대학 체육 동아리 클럽 '열전'

## 전북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대회 성료… 축구에서 전주대 동호회 1위

## 농구 종목에서 돌풍YB팀 1위 · 볼링에서 전북대 스플래셔팀 우승 차지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2019 전북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회는 대학교 동아리 클럽간의 교류를 통한 클럽활동 촉진 및 대학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축구와 농구, 볼링 등 3개 종목이 완산생활체육공원과 전주남중학교 등에서 진행됐다.

대학생 클럽대항대회는 리그 및 토너먼트로 진행됐고, 각 종목에서 총 49개 클럽 583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종목별 단체 우승팀을 보면 15개 클럽이 참여한 축구에서는 전주대 동호회팀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REAL FC팀이 3위는 FC.魂팀이 각각 차지했다.

14개 클럽이 참여한 농구 종목에서는 돌풍YB팀이 1위에 올랐고, 언발란스팀이 2위를 어랑팀과 흑룡팀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20개 클럽이 참여해 대결을 펼친 볼링 종목에서는 스플래셔(전북대)팀이 1위에 올랐고, 체리(우석대)팀과 케글러스(원광대)팀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최우수선수상에는 농구 정다훈(돌풍YB), 볼링 조현학(스플래셔), 축구 이재진(동호회)이 각각 선정됐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지쳐 있는 대학생들이 클럽대항을 통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체육회는 청소년클럽대항과 대학생 클럽대항, 여성생활체육대회,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을 열며 도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2019 전북도지사기 대학생 클럽대항대회'가 성황리에 열린 가운데 축구에서 우승한 전주대 동호회팀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전국체전 경기중 인권침해 심각

##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심한 폭언"

올 해 100회 대회를 치른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경기중 빈번한 폭언과 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가 나왔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28일 전국체전 14개 주요 종목의 언어 폭력 · 신체폭력 · 성폭력 · 기타 인권침해 여부 등 인권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경기장 내외부, 경기 내용, 선수 인터뷰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과열 경쟁과 권위주의적 문화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력이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심한 욕설과 고성, 폭언, 인격모욕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기 종목 감독은 여자 고교 선수들을 툭툭 밀치는가 하면, "이 XX야", "'그 따위로 할거야', "미쳤어?", "나가", "장난해" 등 쉴새 없이 폭언을 퍼부었다.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이 "저게 감독이냐", "욕하지 마라"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다.

성희롱 발언 등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동도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종목 심판이 경기장 안내 여성 직원을 겨냥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내뱉았다. 남자 코치가 여자 선수의 목덜미를 주무르고 만지는 장면도 포착됐고 관중들이 여성 선수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과도한 의전문화 때문에 선수들의 인권이 침해되기도 했다. 한 종목단체 임원의 다과 수발을 위해 여성 선수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됐고, 고위직의 '일장 연설'을 듣기 위해 선수들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주최측과 종목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선수들이 최선의 기량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 인권침해와 권위주의적 문화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특히 "높은 단상에 앉아 어린 여성들의 차심부름을 당연한 듯이 받고 있는 구시대적 문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신체접촉은 격려나 응원의 의미로 받아진다 하더라도 '이를 빙자한 성폭력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최소화해야한다'는 스포츠분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타이거 우즈 PGA 투어 우승 소감

# "데뷔 때 역대 최다승 상상 못한 일"

### "몸에 문제없다면 선수생활 계속"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44 · 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다승 타이기록에 감격스러워했다.

우즈는 28일 일본 지바현 인자이시의 아코디아 골프 나라시노 컨트리클럽(파70 · 7041야드)에서 끝난 PGA 투어 조조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9언더파 261타를 적어낸 우즈는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의 추격을 3타차로 뿌리치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PGA 투어 통산 82승을 올린 우즈는 샘 스니드(미국 · 1912년~2002년)가 보유한 최다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즈는 "프로에 들어와서 첫 우승을 한 후 20년 이상 지났다. 처음 우승할 때는 스니드와 같은 승수를 올린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린을 읽을 때 쪼그려 앉는 것이 안됐지만, 지금은 가능하다. 그것은 작은 것 같은데, 나에게 있어서는 큰일이다"며 "허리에 약간의 통증은 있지만, 스윙도 괜찮았다. 1라운드를 3연속 보기로 시작했지만 좋은 컴백이었다"고 돌아봤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일본에 많은 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은데 대회를 마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팬들의 따뜻한 응원이 힘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내년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2020년 조조챔피언십 출전 의사를 밝혔다.

우즈는 "몸에 문제만 없다면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다"고 말하며 최다승 신기록을 바라봤다.

이어 "오는 12월 열리는 프레지던츠컵에 미국 선수로 출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프레지던츠컵에서 미국대표팀 단장을 맡는 우즈는 단장 추천 선수 4명을 뽑을 수 있다. 자신을 직접 추천할 수도 있다.

한편, 마지막까지 우즈를 추격한 마쓰야마는 "보통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82승은 엄청난 숫자다"고 경외심을 표했다. /뉴시스

# 한국 U-17 축구, 아이티에 2-1 승리… 월드컵 첫 승

### C조 조별리그서… 31일 프랑스와 경기

U-17 월드컵에 출전한 어린 태극 전사들이 첫 경기에서 값진 승리를 챙겼다.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남자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열린 아이티와의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첫 경기에서 승점 3을 획득한 한국은 16강 진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칠레를 2-0으로 꺾은 프랑스에 골득실에서 뒤진 2위다.

총 24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6개조 상위 2개팀과 조3위 중 성적이 좋은 4개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다. 칠레에서 치러진 2015년 대회에서 한국은 16강에 올랐으나 벨기에에 패해 8강행에 실패했다.

한국은 4-3-3 포메이션으로 아이티를 상대했다. 최민서가 최전방에 섰고 김륜성(이상 포항제철고)과 엄지성(금호고)이 측면에 배치됐다.

전반 26분 세트피스에서 선제골이 터졌다. 오른쪽 측면에서 엄지성이 시도한 프리킥이 골키퍼 키를 넘어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 화들짝 놀란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반 41분에는 최민서가 추가골을 뽑았다. 오재혁(포항제철고)의 패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한국은 후반 들어 아이티의 공세를 차분히 차단하며 우위를 유지했다.

후반 34분 변수가 발생했다. 이을용 코치의 아들인 측면 수비수 이태석(오산고)이 경합 중 상대 공격수의 발을 밟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됐다.

수적 열세에 몰린 한국은 후반 43분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헌납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실점을 막고 승리를 지켰다.

한국은 31일 프랑스와 2차전을 갖는다. /뉴시스